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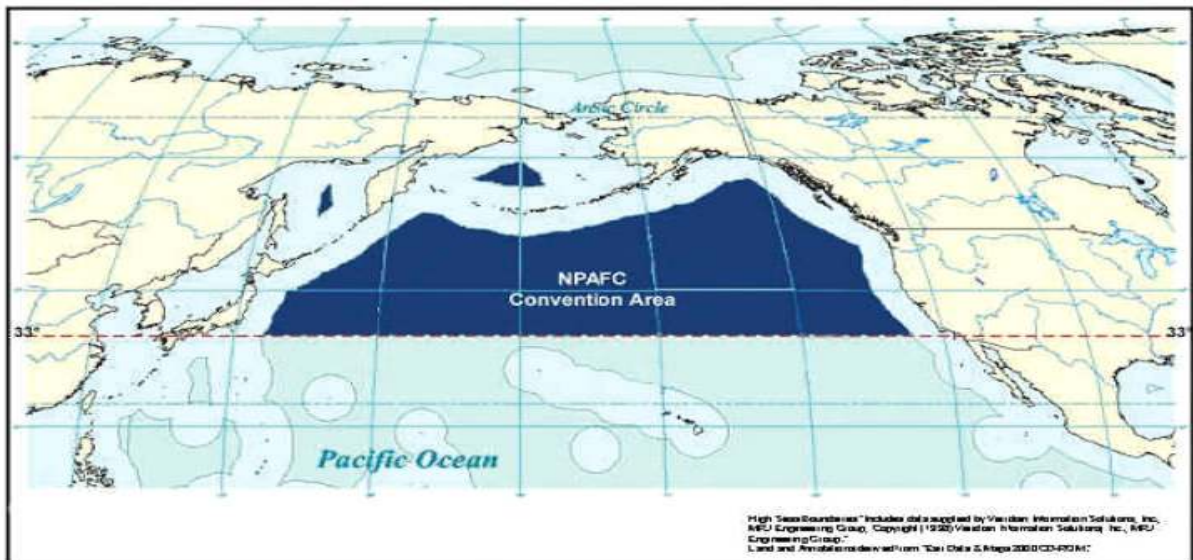
# 제32차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(NPAFC) 연례회의 참석 결과

## □ 회의 개요

- (일시/장소) '24.5.13(화)~5.17(토) 01:00~09:00(한국시간) / 화상회의
- (참석자) 한국, 일본, 미국, 캐나다, 러시아, NGO 등 약 50명
- \* (한국 대표단)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, 국립수산과학원, 조업감시센터, 수산자원공단, 경북 민물고기 연구센터, 섬진강 어류박물관, 강릉원주대학교, 해외수산협력센터

## □ NPAFC 개요

- (설립/가입) '93.2.16 / '03.5.27
- (목적) 소하성<sup>1)</sup> 자원의 포획금지 및 자원보존
- (회원국) 5개국(미국, 캐나다, 러시아, 일본, 한국)
- (관리어종) 연어, 은연어, 곱사연어, 홍연어, 왕연어, 시마연어, 송어
- (관할수역)



- (사무국 소재지) 캐나다 벤쿠버
- (구성) 감시위원회(ENFO), 재정행정위원회(F&A), 과학위원회(CSRS)

1)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생활하고 번식기가 되면 하천, 호수 등지에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는 성질. 연어, 송어, 철갑상어 등. (↔강하성. 예: 뱀장어)

□ 감시위원회

○ 24년 순찰 활동 및 25년 순찰 계획 공유

회원국	주요내용
한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24년 활동) 예산 제약으로 인해 순찰 활동 미실시. 수품원에서 201척의 외국어선에 항만국 검색 실시. 소하성 어류 관련 위반 사항 미확인</li> <li>• (25년 계획) 해경이 9~10월경 공해승선검색 활동 실시 예정. 계획 확정 후 회원국들에게 공유 예정</li> </ul>
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24년 활동) 4~11월 중 항공 순찰(순찰기 2기) 98시간 실시. 외국어선 31척 관찰. 6~8월 중 해상 순찰(순찰선 2척) 89일간 실시. 외국어선 285척 관찰. 많은 중국 및 대만 어선이 관찰되었고 공해 유자망은 미확인</li> <li>• (25년 계획) 5~11월 중 항공 순찰 실시 및 6~9월 중 해상 순찰 실시 예정</li> </ul>
러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24년 활동) 5~10월 중 해상 순찰(순찰선 4척) 53일 및 항공 순찰(순찰기 7기) 2일 실시</li> <li>• (25년 계획) 5~8월 중 해경이 항공 및 해상 순찰 실시 예정</li> </ul>
미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24년 활동) 2개월간 해상 순찰 중 21건의 공해승선검색 실시. 선박 마킹 관련 위반 4건을 확인. 255시간의 항공 순찰 중 411척의 선박을 관찰하고 상어 피닝 관련 잠재적 위반들을 확인. 공해 유자망 및 소하성 어류 보유는 미확인</li> </ul>
캐나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24년 활동) 항공 순찰 370시간을 통해 선박 407척 및 전재 38건 관찰. 9~10월 중 60일간의 해상 순찰을 통해 17건의 공해승선검색을 실시. 공해 유자망 및 소하성 어류 보유는 미확인</li> <li>• (25년 계획) 24년과 유사한 활동 실시 예정</li> </ul>

○ NPAFC IUU 선박 목록

- 사무국은 금년에도 IUU 선박 목록에 대한 신규 등재 제안이 없었고, 목록 수립('23년) 이후 현재까지 한 척도 제안되지 않은바 이 목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였음
- 회원국들은 목록을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하였음
- 캐나다는 IUU 선박 목록 수립 이전에 NPAFC는 '관심 선박(VOI) 목록'을 갖고 있었고 현재도 4척의 선박이 목록에 있음을 제기하였음.

캐나다는 이 선박들의 사건을 재검토하여 IUU 선박 목록 등재 요건이 충족될 경우 IUU 선박 목록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하였음

- 회원국들은 캐나다 제안에 동의하였고 검토를 위한 별도의 작업반을 수립하기보다는 사무국이 선박과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IUU 선박 목록 등재 절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기로 하였음

## □ 재정행정위원회

### ○ 부사무국장 직무대행

- '24년 재정위는 모든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공식인 부사무국장을 채용하지 않기로 하였고 현재 IT/데이터 담당관이 부사무국장 직무대행을 수행해왔음(24.12부로 모든 회원국들이 분담금 완납)
- 사무국장은 IT/데이터 담당관이 본업 외 부사무국장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음을 보고하였고 부사무국장 급여 100%를 받는 것이 합당함을 제기하였음(지난 1년간은 4개월 동안만 수령)
- 회원국들은 IT/데이터 담당관에게 부사무국장 급여를 1년간 지급하기로 하고 현재 검직하고 있는 상태 및 부사무국장 급여 지급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내년 재정위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

### ○ 분담금 인상

- '24년 재정위에서 회원국들은 분담금 인상에 대해 자국 내부적으로 검토해 오기로 합의하였고, 사무국은 회의 전 분담금 인상 시나리오별 재정 상황에 관한 문서를 회람하였음
- 미국은 7% 인상을, 캐나다는 5% 인상을 지지하였고, 다른 회원국들은 효율적인 예산 사용 및 우선순위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였음
- 재정위는 금년에는 분담금을 동결하기로 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인상 여부를 고려하기로 하였음

○ 예산 사용 절감 방안

- 재정위는 예산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였고 대면 회의 개최와 3개국어 동시통역은 유지하기로 하였음
-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, 향후 연례회의는 매년 사무국이 소재한 밴쿠버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
- 연례회의 전 사무국 직원에 의한 사전답사는 하지 않기로 하고 개최지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하기로 하였음
- 회의 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하고 회의 운영 관련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음
- 연례회의 중 통역사는 가능한 한 화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는 출장비를 비상기금에서 지출하기로 하였음
- 사무국 직원 포상을 위한 예산 및 NPAFC 공로상 수상자의 회의 참석 비용은 유지하기로 하였음

**【향후 연도 예산 및 분담금】**

단위: CAD

구분	2025/26	2026/27	2027/28
위원회 예산	865,440*	911,392	922,506
5개국 분담금	993,675	993,675	993,675
1개국 분담금	198,735*	198,735	198,735

\* 2025/26년 위원회 예산은 한화 약 8.65억원. 한국 분담금은 한화 약 1.98억원

○ 차기 연례회의 일정

- (일시/장소) '26.5.11(월)~5.15(금) / 캐나다 밴쿠버\*

\* 5.16(토)~5.17(일): 과학위 워크숍 개최 (주제: "연어, 생태계, 기후 간 상호작용")

□ 과학위원회

○ '24년 소하성 어류 어획량 및 방류량

- '24년에 태평양 연어 어획량은 약 52.8만톤으로 작년 대비 50% 이상

감소하였고 마릿수는 28.5만톤으로 작년 대비 60% 이상 감소하였음\*

\* 통상 짝수해 어획량이 홀수해 어획량보다 적고 이는 곱사연어 풍도 때문임

- '24년에 소하성 어류 방류량은 약 51.9억 마리였고 이는 역대 8번째로 많은 양임. 67%가 연어(pink salmon)였고 23%가 곱사연어(chum salmon)였음

**【회원국별 '24년 소하성 어류 어획량 및 방류량】**

구분	러시아	미국	캐나다	일본	한국
<b>어획량</b> (전체 대비 비율)	25.1만톤 (48%)	22.1만톤 (42%)	6천톤 (1%)	5만톤 (9%)	103톤 (0.02%)
<b>방류량</b> (전체 대비 비율)	16.21억미 (31.2%)	21.91억미 (42.2%)	1.92억미 (3.7%)	11.75억미 (22.6%)	0.1억미 (0.2%)